

Online Series

2016. 05.19. | CO 16-1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 (5): 전략적 노선과 정책

홍민(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북한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는 핵무기를 기축으로 한 통치체제의 등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대회였다. 지난 제6차까지의 대회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다양한 ‘전략적 노선’이 쏟아져 나왔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없는 식상함과 진부한 내용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노선’들은 향후 김정은 정권의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제시된 전략적 노선의 구성과 핵심이 되는 경제·핵 병진노선의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당조직상의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본다.

핵무기에 기초한 통치체제의 등장

김정은의 사업총화보고에서만 ‘핵’ 관련 용어가 총 29회 등장했다. ‘핵무력’ 또는 ‘핵보유’를 수령(최고지도자)의 위대성, 당의 혁명전통, 전략적 노선 등과 연결시켜 사업총화보고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설정한 것이다. 핵무기 없는 북한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핵화’는 곧 당의 선군혁명 전통, 수령의 위대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비핵화’는 김정은 정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의제가 된 것이다. 이번 당대회는 항구적 핵보유에 기초한 통치체제의 등장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향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서 경제·핵 병진노선

‘전략적 노선’은 다음 당대회 전까지 당이 견지하고 나가야할 총적 노선으로서 다양한 세부 과업들을 아우르는 노선에 해당한다. 이번 당대회에서 ‘전략적 노선’은 총 11회 언급되었고 이 중 향후 전략적 노선 관련 언급은 총 8회 등장한다. 여기에 ‘향구적’이라는 강조 수사가 들어간 표현은 총 5회 등장한다. ‘향구적’이란 표현은 그만큼 해당 노선의 불가역성과 강력한 지속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수사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제6차 당대회에서 1개만을 언급했던 것에 비해 이번 대회에서는 총 6개의 ‘전략적 노선’을 언급하였고, 이 중 3개는 ‘향구적인 전략적 노선’(‘경제·핵 병진노선’, ‘자강력제일주의’, ‘선군혁명노선’)으로 규정했다.

이들 향구적인 전략적 노선은 사실상 변화나 융통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노선 규정이다. 이들 노선은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일종의 정책의 내러티브(narrative)를 구성하고 있다. ‘경제·핵 병진노선’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국방공업 중심의 투여 의지를, ‘자강력제일주의’는 내핍과 희생을 요구하는 자력갱생·간고분투의 정신적 노선을, ‘선군혁명노선’은 군과 치안기구를 통한 물리적 통제체제와 규율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세가지 전략적 노선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기축으로 자강력제일주의와 선군혁명노선이 지원하는 수단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공업(무기개발사업) 중심의 자원배분과 경제의 이중화

경제·핵 병진노선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핵무력(국방공업, 국방과학기술)과 경제의 상호연계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소위 ‘과학기술과 생산(경제) 일체화’, 즉 ‘우리식 새로운 주체무기개발사업을 통한 국방공업에서 최첨단돌파’를 제시한 부분이다. ‘최첨단돌파’는 국방공업·국방과학기술부문의 비약적 발전을 경제로 확산시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속내는 국방공업(핵·미사일공업) 중심의 자원배분 지속을 ‘최첨단돌파’로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군수에서 민수로의 확산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당이 직할 관리하는 핵·미사일 관련 국방공업과 내각 관리 일반 민수공업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당·군·산복합체 형태의 군수부문 자원배분이 상당 부분 구조화되어 왔고, 병진노선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 및 대북제재 관련 인물의 당 전면 포진

향구적인 전략적 노선인 경제·핵 병진노선을 주도하는 핵·미사일 고도화 및 대북제재 관련 인물들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정무국,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비롯해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에 대거 배치되었다. 우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정무국, 당중앙군사위원회 모두에 포함된 인물은 김정은과 더불어 리만건 당 군수공업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다. 핵·미사일 개발 총책임자 대북제재 대상인 리만건 당 군수공업부장의 전면 배치는 경제·핵 병진노선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인민군 정찰총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의 경우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부대 ‘121국’을 관할하고 있다. 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이 강조한 정밀화(미사일), 경량화(핵탄두), 무인화(무인기), 지능화(사이버테러) 등의 현대적 주체무기를 담당하는 인물들이 중책을 맡은 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 중 국방공업을 포함한 당·군·산복합체 관련 인물로 확인된 사람만 총 14명에 달한다.¹⁾ 이들 대부분은 김정은의 국방공업(과학), 핵·미사일 관련 공개활동을 수행했던 인물들이다.

4군종 및 주요 병종 사령관이 제외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직

이번 당대회에서 특이한 부분은 첫째, 당중앙군사위원회에 김락겸(전략군사령관), 리용주(해군사령관), 최영호(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윤정린(호위사령관), 김영복(특수전부대 11군단장), 김춘삼(제1부총모장) 등 4군종 및 병종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제외된 부분이다. 제외 배경으로는 우선 군에 대한 당의 영도, 즉 김정은의 군부 장악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둘째, 각종 이권으로 특권화되어 있던 군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특권을 회수하여 당으로 이관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이다. 셋째,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인원수를 줄이고 정치국과의 인물 중첩도를 높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11명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 김경욱과 서홍찬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이다. 따라

1) 리만건 당 군수공업부장, 리병철 당 중앙위 제1부부장,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박도춘 당 중앙위 위원,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전일춘 국가개발은행 이사장, 손철주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김병호 강계정밀연합기업소 책임비서, 주규창 전 당 군수공업부장, 양승호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왕창욱(소속 미상, 핵 공업 관련 인물 추정),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등이다.

서 당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하는 정치국과 인물 중첩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당중앙군사위원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당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군수공업부의 ‘트로이카 체계’

당 권력엘리트와 조직 변화 관련해서는 대체로 인물 부상이나 정무국의 신설 등에만 주목을 하고 있지만, 당 조직지도부가 통치의 핵심조직으로 권력기구 전반에 배치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경우 당 조직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은 황병서와 조직지도부가 관할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수장인 김원홍과 최부일, 그리고 조직지도부 출신의 박태성,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연준이 배치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경우 조직지도부 부부장인 김경옥과 황병서, 김원홍, 최부일 등이 역시 배치되어 사실상 조직지도부 인물 중심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의 경우에도 조직지도부의 홍인범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당 조직지도부는 장성택 처형 이후 당 행정부를 흡수하면서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부상했다. 사실상 김정은 정권의 통치 전반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다. 장성택의 당 행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국가검열성에 대한 당적 지도 권한을 당 조직지도부가 다시 흡수하게 됨에 따라 무소불위의 조직이 된 것이다. 군에 대한 당의 영도 역시 조직지도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조직지도부는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군에 대한 인사와 임명, 숙청권, 인민군 당위원회의 책임비서를 통해 군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권을 행사한다. 여기에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주요 군종 및 병종의 사령관마저 배제하고 조직지도부 관련 인물들이 대거 배치됨에 따라 사실상 조직지도부에 의한 당적 영도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기남(당 중앙위 선전담당 비서 겸 당 선전선동부장), 리재일(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여정(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병호(강계정밀연합기업소 책임비서, 선전선동부 부부장 출신)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대내외적 이미지와 주요 당 노선·정책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가다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강력제일주의, 청년중시 등 김정은 정권의 주요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당 군수공업부는 경제·핵병진노선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중심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리만건 당

군수공업부장, 홍승무와 홍용칠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도춘, 주규창 전 당 군수공업부 부장 및 비서들이 당중앙위에 포진하고 있다. 결국 당 조직지도부는 당의 유일영도체계를, 선전선동부는 주요 정책 프레임 설정을, 군수공업부는 경제·핵 병진노선의 구현을 담당하는 트로이카 체계가 현재 김정은 정권의 통치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KINU 201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